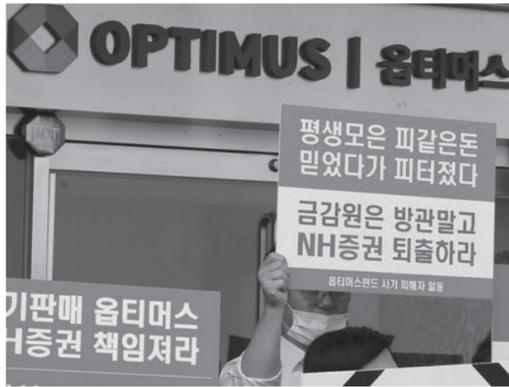


(...8페이지에 이어) 보를 받았다. 정권 실력자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5000억원대 고객 예약금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꾼들이 지난 5월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문건을 보면 "소송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과 회사가 직·간접으로 연결됐다"며 "(금감원 조사를 막지 못하면)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가 우려된다"고 돼 있다. 문건에는 또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라는 내용도 나온다. 정권 핵심 인사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봐주고 잇속을 챙겼다는 것이다. 충격적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건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연결된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혀 있는데, 청와대(6명) 국회의원(5명) 민주당(3



명) 기재부·국토부·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이라고 한다. 이들이 펀드 관계자들이 말하는 '프로젝트 수익자'일 가능성이 높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펀드 대표의 주변에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도 아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나 금감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펀드 사기와 연관된 회사가 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능하기 어렵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 피켓시위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

을 권력형 비리 담당인 반부패 부가 아니라 일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대통령 수속인 이성윤 지검장 지시다. 권력 비리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펀드 대표가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3개월 가까이 몽개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임 펀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몇 달째 소환을 미뤘었다. 검찰이 계속 몽개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나라를 세운 대통령, 쪼갬 대통령

국민통합 아닌 분열을 목표로 움직이는 정권 쪼개고 갈라도 재집권 가능성 전략 썼다

이승만 정권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농지개혁이었다. 1949년 농지개혁은 국민 절반을 넘던 소작농을 새로운 땅 주인으로 만들었다. 번지르르한 선전에 그친 북쪽의 농지개혁과 달리 지주들을 다독여 농민에게 실제로 땅을 나눠준 '유상몰수·유상분배'는 신생국 국민 통합에서 신의 한 수였다. 남쪽 농민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1956년 박헌영을 숙청한 김일성은 "6·25 때 남반부 인민들이 조금만 봉기했어도 부산을 해방하고 미국놈들 상륙을 막았을 것"이라 했다. 농민의 아들들이 봉기는커녕 내 땅,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들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 국민이 소속감을 가질 때 국가는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생각과 이해가 다른 사람들을 국민이란 이름으로 모을 수 있느냐를 통치자는 고민한다. 통치의 목적은 통합이고, 통합은 통치자의 첫째 책무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도 늘 그 고민을 했다.

국민 통합이었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며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실은 정반대다. 이 정권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다. 한 번도 경험 못 한 사태다. 추석연휴에 만난 70대 퇴직 공무원은 "평생한 국가·국민을 위해 봉직했다 생각했는데 요즘 문재인·조국·추미애의 국민과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저들에게 세금을 뜯겨가며 사대질 당한다는 생각에 잡도 안 온다"고 했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이 퇴직 공무원 한 명뿐이겠나.

분열의 정치는 1980년대 운동권 주축인 정권의 타고난 속성이다. 나만 정의고 바리케이드 건너편은 타도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게 당시 운동이었다.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을 내걸고 유혈 숙청극을 벌였다. 내 편이 아니면 가차 없이 잘라내고 자기편을 앉혔다. 편 가르기는 자신들 치부를 가리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킨 선거 공작이 들끓나자 지지층을 향해 '검찰 개혁' 주문을 외며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조국씨 위선과 파렴치가

드러났지만 지지 세력은 '조국 수호' 주문을 외며 서초동으로 모여들었다. 요즘 추미애 장관도 그걸 따라 한다. 거짓말에 여지 궤변을 뽐뽐하게 늘어놓아도 지지층이 지켜주리라 믿는 것이다.

시장님 성폭행 의혹도 우리 편이면 덮어야 하고 공무원이 수천만원을 먹어도 우리 편은 봐줘야 한다. 우리 편이면 TV 토론에 나와 거짓말하는 일도 애교다. 편싸움이 있는데 도덕과 정의를 따질 게 제인가. 야당을 찍어내려 선거법을 일방 개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72년이 만든 여러 원칙과 상식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갔다.

편 가르기에 재미 붙인 정권은 없던 갈등까지 만들어 내 싸움 붙인다. 보수 세력을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았다. 연관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인정'을 쌓아 입을 틀어막았다. 국민을 쪼개고 갈라도 얼마든지 재집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도리어 분열을 재집권의 유용한 수단으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北 외교관의 가족 '인질'



해외 나가는 북한 외교관의 최대 고민이 '자녀 동반' 문제라고 한다. 자녀 중 한 명은 반드시 평양에 '인질'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인사철마다 북 외무성 가정은 눈물바다가 된다. 쌍둥이도 예외가 없다. 김일성 시대만 해도 북 외교관들은 해외 근무자 전용인 남포혁명학원에 자녀를 맡 놓고 맡겼다. 그러나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그럴 수가 없다. 북한 첫 장애인 선수로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출전한 림주성이 외교관 자녀라고 한다. 어릴 때 혼자 북에 남겨졌다가 중장비에 치여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

▶한국에 정착한 북 외교관이 10명쯤 된다. '자녀 문제'로 탈북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영국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자서전에 "자식에게 만든 소중한 자유를 찾아주자. 노예의 사슬을 끊고 꿈을 찾아주자"는 결심으로 탈북했다고 적었다. 한류와 자유

를 맛본 자녀가 갑자기 한국 공관에 들어가는 바람에 부랴부랴 탈북한 외교관도 있다. 탈북 외교관은 "자녀가 중환자이면 데려 나올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려고 뇌물을 주고 말쑥한 자녀를 불치병 환자로 꾸미는 동료도 있었다"고 했다.

▶중국에서 알던 북 공관원이 어느 날 "용량이 큰 축전지를 사줄 수 있느냐"고 부탁한 적이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아들이 북에서 평양외국어학원 입시를 준비 중인 데 정전이 되더라도 밤새 탁상 등을 밝히려려 큰 축전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외교쯤 되는 외국어학원을 졸업하면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 등으로 해외 나가가 쉽다. 돈벌이·출세 기회와 직결돼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했다.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작년 7월 한국에 망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같이 있던 딸은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당시 이탈리아 외교부는 '조 대사대리 잠적 직후 딸이 북송됐다'고 했다. 딸과 함께 탈출하려던 계획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망명한 조 대사대리가 우리 정부에 '비밀 유지'를 당부한 것은 인질이 된 딸의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 대사대리와 외국어학원 동문인 태 의원은 "북이 조 대사대리 딸을 가족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절대 권력자가 수도를 떠나는 관리의 자녀를 '인질' 잡는 것은 일본 막부 같은 봉건시대 때 유습이다. 네가 나를 배반하면 가족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협박이다. 지금 어떤 문명국이 이런 만행을 하나. 조 대사대리 부부는 지금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이다.

로 여기는 것 같다. 우리 편만 투표장으로 확실히 불러내면 승리한다는 가설은 지난 총선에서 증명됐다. 민주당의 총선 득표율은 49%였다. 투표

율(66%)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 중 32% 지지만으로도 180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공식대로라면 구심점 없는 야당을 상대로 다음 대선 승리

도 어렵지 않다. 지지층을 다독이고 부추겨 대오만 유지하면 된다. 72년 전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가 있었고, 지금 문재인과 나라 쪼개기가 있다.

가 자 여 행 사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투어 상품

1.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2.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3.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미서부 투어 상품

1.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2.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3.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4.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5.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6. 옐로스톤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1.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2. 핵시 서유럽 6박 7일
3. 이태리 일주 7박 8일
4.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5. 동유럽 7박 8일
6. 발칸 일주 11박 12일
7.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8.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9.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